

1조4000억 생산 유발·도시 브랜드 홍보 효과 수십조원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이끈다

유치효과로 지역경제 살리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일~8월 18일)는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전국 2조4000억원, 광주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수많은 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수영 대표팀 제리 매쉬번(Jeri Marshburn) 선수단장이 14~15일 광주수영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광주를 찾는 등 해외 팀의 광주 방문도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광주 대회의 참가국은 209개국으로, 선수단 1만2000여명과 임원·미디어팀 3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1년 대구 IAAE 육상대회(6882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직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인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에는 177개국 선수 2303명, 임원 1912명, 수영대회연맹 관계자 1279명과 1611개 미디어와 방송 등이 참여했다. 본 대회에 이어 열리는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인 마스터즈대회 등록자 수도 1만2000명에 달했고 대회기간 48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대회를 중계했고, TV 누적시청자만 5억10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로서는 최

전국 2만4000명 고용 창출

209개국서 1만5000명 방문

전세계 TV 방영 수익명 시청

美 등 각국 선수단 현장 점검

대 규모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거뒀다는 경제효과는 막대하다. 광주전남 연구원이 추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전국 2조4000억원, 광주 1조4000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 효과 전국 1조원, 광주 6500억원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광주 1만8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4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회기간 전 세계 수익 명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고 45억명이 언론을 통해 대회 소식을 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TV 등을 통해 도시가 소개되는 방송가치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FINA 개최지 대회결과보고서 지난 2009년 로마대회 방송가치는 약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대회는 TV 방송 196개국, 총 3509시간과

뉴스 재활용 약 3000건(122시간), 미디어 토털 누적 노출수는 30억명 이상에 달했다. 또 2011년 상하이 대회 방송가치는 약 18조원으로 추정됐고, TV 방송 4434시간 생중계, 미디어 토털 누적 노출수 45억여명에 달했다. 2015년 카잔대회 방송가치도 TV 방송 5728시간 생중계, 미디어 토털 누적 노출수 68억여명에 육박했다.

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해외 각국 선수단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14일 광주를 찾은 매쉬번 단장은 조직위 사무실과 선수촌, 남부대주경기장·염주체육관·조선대 등 경기장을 방문해 숙박과 경기운영, 수송, 안전 문제 등을 사전 점검했다. 미국 일행은 조직위 관계자에게 미국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대회 성공을 위한 노하우도 전수했다.

미국 수영 대표팀은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성적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9개 국가의 수영 관계자가 광주를 찾아 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미국 수영 대표팀 선수단장에 이어 2021 후쿠오카세계수영대회 관계자 등 각국 수영 관계자 방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타 국제경기대회 참가규모

(단위 : 명)

년도	대 회	참가국	선수단	임원/미디어	총 계
2010	남아공 FIFA 월드컵	32	736	15,000	15,736
2011	대구 IAAF 육상대회	212	3,882	3,000	6,882
2012	런던 올림픽	204	11,000	15,000	26,000
2014	인천아시안게임	45	14,632	12,010	26,642
2015	광주U대회	140	10,632	5,171	15,803
2019	수영선수권대회	209	12,000	3,000	15,000

기업인들 “혁신성장 하려면 실패 용인, 규제 해제를”

문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기업 측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혁신 성장을 위해 실패에 대한 용인과 비용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고, 황창규 KT 회장은 데이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는 둥근 원형 형태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뤄졌고, 대통령 모두 발언 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 사회로 대기업·중견기업 대표가 질의하고 정부 부처 책임자나 대통령기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새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중견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끌어내려면 정부도 적절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허심탄화하게 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건의가 규제 혁신에 집중된 만큼, 정부의 산업정책 역시 과감한 규제개혁을 포함한 혁신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산업정책 방향 역시 기업들의 혁신을 돕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

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의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앞으로는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행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경내 산책을 했다. 이들은 영빈관에서 본관·블로문·소정원을 거쳐 녹지원까지 25분 가량 걸었고,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4대기업(삼성·현대차·SK·LG)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동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가 16일 미래에셋대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기로 향후 검토될 공장 이전 예정지 및 부지 개발 방향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빛그린산단 토지이용계획 다시 짜야 수용 가능 공장 부지 ‘KTX 투자선도지구’ 포함 여부 주목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송정역 일대 땅값 뛰어

개발 이익 수천억원 이를 듯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공장을 어디로 옮기고 어떤 방식으로 기존 부지를 개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때는 도심 외곽에 위치했지만 도심이 확장하면서 광주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전 대상 예정지 뿐 아니라 마지막 으로 남아있는 광주지역 최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공장 부지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공장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빛그린산단. 왜·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빛그린 산단이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빛그린산단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광주형 일자리’를 우선 적용하는 산업단지이고, 현대차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산단 전체 부지(407만1000㎡) 내 산업시설용지(264만9000㎡)의 4분의 1 규모인 62만8000㎡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부지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곳은 또,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광주시 안팎에서는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밸리는 물론

광주첨단산단 등과 인접하고 광주공장, 무안공항과도 가까워 미래 신성장 동력의 중추 산업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광주공장(39만6694㎡) 규모의 부지를 갖춘 산단과 용지를 고려하면 빛그린산단이 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빛그린산단의 경우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분양된 산업시설용지도 8만3000㎡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광주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공장 부지 어떻게 개발되나·미래에셋대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 송정역 인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광산구와도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인 부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계획에 따라 광주공장 이전에 대한 사업성과 이전 자금 조달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개발 방향은 용역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당장,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중인 광주 송정역 일대 ‘고속철도(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공장 부지가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

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정역 일대는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광주송정역 인근 64만㎡의 땅에 모두 4100억원을 투자해 산업시설·연구용지·주거단지·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게 사업 골자다.

이미 송정역 일대는 SRT개통, 투자선도지구개발, 수영대회로 인한 인근 도로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일대 단독주택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2%가 뛰었다. 송정역 지역 지가 상승률도 7.34%(지난해 11월 기준)로 광주 평균 지가 상승률(4.70%)을 훌쩍 뛰어넘는다. 단독주택이 들어선 송정역 도로변 땅값도 3.3㎡당 1500만~2000만원에 이르는 게 지역부동산업계 전언이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하면 공장을 옮기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호타이어측은 이와관련, 노조측에 광주공장 부지 개발에 따른 모든 수익을 신공장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장은 친환경설비에 첨단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기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왕왕~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